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가치 창조”
제일전기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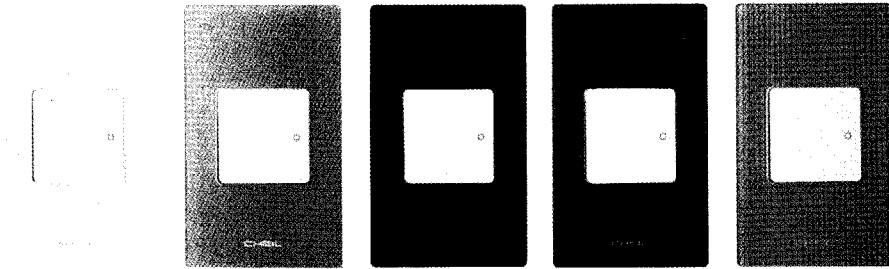
 제일전기공업(주)

▶ 52년 전통 지켜온 '토종 기업'

제일전기공업(주)(대표 강대우)는 52년 전통의 몇 안 되는 국내 토종 배선기구 및 차단기 전문업체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일전기는 지난해 부산시 향토기업과 10대 전략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다.

강대우 사장은 “정직과 원칙으로, 고객중심으로, 변화 지향적으로라는 모토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몇 개 없는 메이저급 토종기업이라는

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선정



자부심을 갖고 위기의식 속에서도 철저히 대처하고 있는데 환경 분야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창업에서 시작하여 각종 인증마크 획득,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선정, 향토기업 선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업체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EATON그룹의 우수협력업체 선정 등 제품의 우수성과 품질의 안정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으며, 회사의 비전과 같이 사람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초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 배선기구 PART

배선기구 제품의 경우 주택공사 등 공영아파트뿐만 아니라 상당수 민영 아파트에 주로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보급형은 물론 고급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디노시리즈, 아크로클래스, 테코시리즈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들 제품은 고품격 디자인의 고급형은 물론 단순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의 보급형도 있어 가격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에서 인기를 모으는 요인 중 하나다. 플레이트의 경우도 제품마다 일대일 호환이 가능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제품 사양 변경도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최근 개발한 제품 상단에 스위치가 달려있는 절전형 스위치부착콘센트는 소비전력의 11%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

최근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진출, 소비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제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강전부분과 약전부분을 동시에 조립,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개발된 통합수

구의 제품은 시공성 및 사용상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 많은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요즘에는 고객, 건설사로 부터 차별화된제품,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다양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제일전기공업(주)에서는 고객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다양한 디자인 개발,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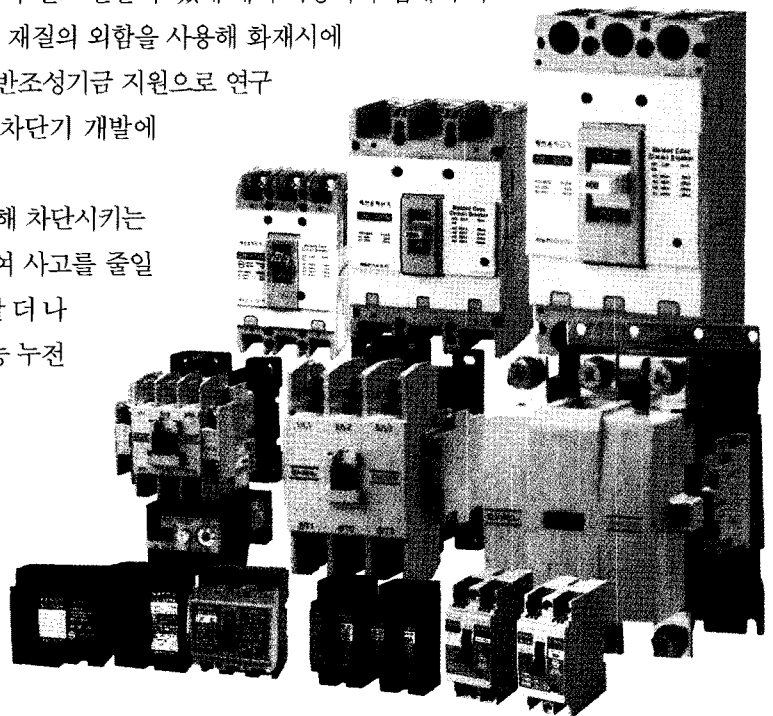
▶ 계전기 PART

제일전기공업(주)는 배선기구뿐만 아니라 차단기사업도 주력하고 있는데, 차단기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단기 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차단기 분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한 정격(30AF~800AF)을 보유하고, 가공치수는 물론 패널절단치수와 단자 높이까지 통일화해서 설계와 제작의 표준화를 이뤘다. 또 배선용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크기를 동일하게 제작해 용도에 따라 일대일 호환이 가능케 함으로써 교체용을 용이하게 했다. 이 밖에도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에 보조커버가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서 사용자가 쉽게 부속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했으며, 난연성 재질의 외함을 사용해 화재시에도 안전하다. 또한, 한국전력의 전력기반조성기금 지원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한 고감도형 콘센트 누전차단기 개발에 성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제품은 10mA이하의 전류를 감지해 차단시키는 차단기로 일반 감도보다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아크 검출 기능을 결합한 복합기능 누전 차단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차단기와 함께 주력하는 마그네트는 전 제품에 해외인증(CE, TUV, UL)을 취득해 수출 제품에 적용하고 있고, 최적화 설계를 통한 전기적/기계적 수명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시켰으며,



Core 부품의 평면도를 2/100로 관리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제일전기공업(주)는 환경 분야에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비해 ISO14001을 획득했으며,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따르기 위해 Ag-SnO₂나 AG-Ni 등 친환경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장마철 도로변, 가로변 및 공공시설 주변에 설치한 가로등 시설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누전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형 누전차단기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가로등 등주 내·외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락 및 누전을 차단해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대우 사장은 “제일전기공업(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확보는 물론 수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